

# 智異山 所在 寺刹의 朝鮮時代 開板佛書 研究

A Study on Buddhist Scriptures Published in the Temples of  
Jirisan in the Joseon Dynasty

송 일 기 (Song, Il-Gie)\*

박 민 희 (Park, Min-Hee)\*\*

## ◁ 목 차 ▷

- |                    |                |
|--------------------|----------------|
| 1. 서 언             | 4. 개관참여자의 교류활동 |
| 2. 지리산 소재 사찰의 불서개판 | 5. 결 언         |
| 3. 지역별 불서 개판의 양상   | <참고문헌>         |

## < 초 록 >

조선시대에 지리산 사찰에서는 26개의 사찰에서 총 120종의 불서가 간행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간행본의 지역별 간행 특징과 간행 참여자들의 사찰 간 교류를 분석하여 지리산 불교 문화권의 사찰본 특징을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파악한 지리산 사찰본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지리산 지역 중 함양 지역 사찰은 유일하게 14-15세기 간행본 전본을 가지고 있다. 함양 지역 사찰은 조선 초기에 지리산 일대 불교계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음을 추정할 수 있다. 하동 지역 사찰에서는 승려들의 교육과 강학을 위한 불서가 대대적으로 간행되었다. 특히 16세기와 17세기 초반에는 벽송지엄, 부휴선수 등의 불교계 고승들이 이 지역 사찰에 주석하여, 문하에 많은 승려들이 모였고 이로 인해 교계의 대규모 간행이 필요했던 것이다. 산청 지역 사찰에서는 18세기 전반기에 임자도에 표착한 중국 불서 중 아직 간행되지 않은 서적을 복각하여 간행하는 불사가 유행하였다. 이는 1690년에 대원암에서 진행된 『華嚴經疏鈔』 분각활동의 자극을 받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구례 지역 사찰에서는 화엄사가 가장 많은 간행횟수를 보인다. 17-18세기의 화엄사 간행본은 정토종류, 밀교경류, 영험류, 재의식류 불서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리고 형식면에서는 3종의 국한문혼용 불서가 있어 일반 민중의 종교적 요구에 부합하고자 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남원 지역 사찰본은 모두 18세기 후반에 간행되었다. 남원 지역 사찰본은 1770년대에 이루어진 『華嚴經疏鈔』의 재간행 불사가 중심을 이룬다. 설교상언의 발원으로 시작된 이 불사는 대암정사가 주도하고 인근의 황령암, 내원정사가 협력했으며, 경상남·북도의 주요 사찰들의 동원(同願)과 시주가 함께하였다. 또한 칠불사·화엄사, 쌍계사·화엄사, 쌍

\* 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igsong@cau.ac.kr)

\*\* 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박사과정(allosa@empal.com)

접수일: 2010년 9월 3일 최초심사일: 2010년 9월 17일 심사완료일: 2010년 9월 25일

계사-지곡사, 칠불사-왕산사, 신흥사-연관사, 화엄사-왕산사, 삼장사-쌍계사의 간행본에 중복 참여한 각수와 연판자의 존재를 통해, 행정단위를 뛰어넘는 지리산 사찰 내에서의 인적 교류를 확인하였다.

要語: 사찰본, 지리산, 화엄경소초, 강원교재, 사찰 교류, 임자도, 신흥사, 쌍계사, 화엄사, 대원암, 대암정사, 지엄, 부휴, 백암

### <ABSTRACT>

In the Joseon Dynasty, a total of 120 kinds of Buddhist books were published in 26 temples of Jirisan. This study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of those Buddhist temple editions by analyzing them according to regions and exchanges of printing technicians among temples.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The temples of Hamyang region with the complete collection of the 14th and 15th centuries were assumed to be the powerful printing center in the early Joseon period. The temples of Hadong region published a lot of books for teaching and lecturing Buddhist monks, because plenty of monks in the 16th and 17th centuries gathered, following prominent Zen masters such as Jieom and Buhyu.

It was prevalent in the temples of Sancheong region in the early 18th century to copy and engrave the Chinese Buddhist books found on the wrecked Chinese ships at Imjado. Among the temples of Gurye region, Hwaeomsa showed the most frequent publications, including the publication of various Buddhist scriptures, books on esoteric Buddhism, miraculous efficacy, and Buddhist ceremonies.

The temples of Namwon region published books only in the late 18th century. The re-publication of *Annotation of the Avatamska Sutra* at Daeamjeongsa in 1770 was regarded most important, because many monks in the neighbor areas and major temples in Gyeongsang-do mentally and financially and cooperated.

The names of some engravers and printers commonly found on the publications of various temples proved the cooperation and exchange of human resources among those temples of Jirisan in the Joseon period.

Key words: Buddhist scriptures, Jirisan, Annotation of the Avatamska Sutra, textbook of Monks' School, exchange between temples, Imjado, Sinheungsa, SSanggyesa, Hwaeomsa, Daewonam, Daeamjeongsa, Jieom, Buhyu, Baegam

## 1. 서 언

지리산은 예로부터 우리 민족의 숭배의 대상이 되어 신선이 사는 산이라 하여 ‘方丈山’이라고 일컬어져 왔다. 『三國史記』 祭祀志에는 신라시대의 명산으로 오악삼산(五岳三山)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중 지리산은 오악의 하나로 꼽히고 중사(中祀)의 대상으로 숭배되었다. 또한 지리산은 백두산의 큰 줄기가 다한 곳이라 하여 일명 ‘頭流山’이라고 불리며, 『擇里志』에는 금강산, 한라산과 함께 ‘三神山’으로 꼽힌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처럼 민족의 영산으로 존송되는 이곳에 우리나라에 불교가 전래된 이후 수많은 사찰이 건립되었다.

지리산에 사찰이 건립된 문헌상의 기록은 통일신라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화엄사와 연곡사는 경덕왕대(742~765)에 사경된 『新羅白紙墨書華嚴寫經』의 발원문에서 이름이 확인되는 연기(緣起) 조사에 의해 중창된 것으로 알려져, 그 창건 시기는 이보다 앞선 시기로 확인된다. 그리고 신라 경덕왕대에 단속사 창건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최치원(857~?)이 쌍계사에 머물렀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sup>1)</sup> 특히 지리산이 불교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로 자리매김하기 시작한 것은 중국에서 귀국한 승려 홍척(洪陟)이 남원의 실상사에 선문을 열면서부터이다. 실상산문(實相山門)은 선종 불교 전파의 중심지로서 통일신라 말기에 성립된 구산선문(九山禪門)의 일문으로 형성되었다. 고려시대에 지리산은 보조지눌(普照知訥, 1158~1210)의 참선 수행 도량이 되기도 하였다. 지눌은 수선결사를 맺고 거조사(居祖寺)에서 출발하여 새로 중창하는 송광사(松廣寺)로 향하던 중, 지리산에 있는 상무주암(上無住庵)<sup>2)</sup>에 머물면서 3년 동안 참선 수행을 하였다.

조선시대에 있어서 지리산은 조선 중기 불교계의 양대 계파를 형성한 ‘청허계(淸虛系)’와 ‘부휴계(浮休系)’의 승려들의 활동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어 매우 의미 있는 지역이다. 이들은 지리산 일대 사찰에서 머물면서 여러 사찰을 왕래하며 강론을 펴기도 하였고 지리산 지역 사찰의 중창을 주도하기도 하였다. 특히 부휴

1) 『三國史記』 列傳 <崔致遠>傳.

2) 지금의 함양군 마천면 삼정리에 위치하였던 암자.

계 승려들은 보조지눌의 가르침을 따라 송광사를 중심으로 그들의 사상성을 확대해 갔는데<sup>3)</sup>, 특히 쌍계사와 능인암(能仁庵)은 부휴선수(浮休善修, 1543~1615)와 그의 제자인 벽암각성(碧巖覺性, 1575~1660), 백암성총(栢庵性聰, 1631~1700) 등 부휴계 승려들의 주요한 활동 지역이었다. 이들 승려들은 불서 간행에 직접 참여하는 것을 비롯하여 개판(開板) 불사를 적극 주도하였다.

한편 삼국시대 이래로 조선후기까지 지리산에 건립되었던 사찰은 155개소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 중 조선시대에 1종이라도 불서를 간행한 사찰은 모두 26개소에 이르며, 간행본은 1399년 덕기사(德奇寺)의 『高峰和尚禪要』를 시작으로 120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사찰본은 간행에 참여한 사람들의 역할과 성명, 그리고 시주자들의 성명을 권말에 상세히 기록해놓은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간행 정보를 통해 지역, 시기, 참여자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서문과 발문이 수록되어 있어 간행의 동기나 배경을 살필 수 있기 때문에 간행 불서의 여러 특징을 밝힐 수 있다.

그리하여 이 연구는 지리산이 불교사에서 하나의 문화권역을 형성하였음을 전제로 조선시대로 한정하여 불서의 간행 사실을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개판불서를 대상으로 지역별·시대별·주제별 특징을 분석하여 지리산 권역에서 간행된 불서의 종합적 성격을 파악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러나 지면 관계상 이 논문에서는 간행 불서의 지역별 분석과 간행에 직간접으로 참여한 각수 등의 교류 활약상만을 대상으로 한다.

## 2. 지리산 소재 사찰의 불서개판

### 2.1 지리산의 사찰 소재 현황

역사적으로 지리산에 소재하였던 사찰은 총 155개소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3) 김용태, “부휴계의 계파인식과 보조유풍,” 『보조사상』 제25집(2006), 329-339.

관련 문헌에 수록되어 있는 지리산권의 사찰을 종합하여 시·군별로 정리하면 <표 1>과 같다.<sup>4)</sup>

<표 1> 지리산 소재 사찰 현황

지역	사찰
山淸 (30개)	金藏庵 南臺庵(南臺寺) 內院庵(內院精舍, 德山寺) 斷俗寺(槽淵寺) 大源寺(平原寺) 兜率庵 東上元寺 無爲庵 文殊庵 方丈庵 百王庵 法戒寺(千佛庵) 普門庵 普庵 普庵寺, 佛藏庵 三壯寺(三藏寺) 石上庵 深寂寺 王臺庵 王山寺 圓通庵 淨趣庵 坐方寺 智谷寺 (知谷寺, 智居寺) 地藏寺 天藏庵 香積寺 解會庵 花林寺
河東 (42개)	迦葉臺 古僧堂 國師庵 金輪庵 金沙窟 南臺庵 內院庵 能仁寺 大隱庵 妙峯庵 默契寺(默溪寺) 文殊庵 普門庵 普珠庵 佛日庵 佛出庵 貧鉢庵 沙惠庵 上水國寺 西方丈 成佛庵 小隱庵 深院庵 安養寺 靈臺庵(靈臺寺) 靈神寺(靈神庵) 五臺寺 玉簫庵 牛翻臺 隱城庵 隱井臺 義神寺(義神庵) 神興寺(神凝庵, 新興寺, 臣興寺) 雙溪寺 眞樂臺 長興庵 中水國寺 鐵堀 靑巖庵 靑鶴庵 七佛寺(雲上院, 雲院寺, 七佛庵) 下水國寺
咸陽 (31개)	見佛寺 古涅庵 君子寺 金臺庵 羅漢殿 大乘庵 德峰寺 兜率庵 頭流庵 馬迹寺 妙峰庵 妙貞庵 無住庵 文殊寺 白蓮庵 白丈庵 法華寺(法華庵) 碧松庵 報國庵 寶月庵 上流庵 上蓮臺庵 上無住庵(無住庵) 先涅庵 新涅庵 安國寺(安國庵) 安靜庵 靈源寺(靈源庵) 寂照庵 紅蓮庵 黃嶺庵(普門庵)
求禮 (26개)	見性庵(浮屠庵) 九層庵 極倫庵 金井庵 內院庵 堂窟庵 大興寺 道界寺 文殊寺 白蓮庵 寶月庵 寶積庵 鳳泉庵 奉天寺 三日庵 上禪寺 上院庵 西窟庵 石窟庵 修道庵 藥師庵 燕谷寺(鶯谷寺) 烟觀寺 知及庵 泉隱寺(天彥寺, 甘露寺) 華嚴寺(華嚴寺)
南原 (22개)	江淸庵(石秀庵) 敬德寺 臺巖精舍 妙峯寺 百丈寺 浮屠庵 三岐寺 瑞雲庵 瑞眞庵 松林寺 實相寺 深源寺(深源庵) 藥水庵 龍溪庵 龍鶴庵 頂龍庵 住指寺 天彥寺 波根寺(大興寺) 黃嶺庵 源水寺 長溪寺
미상 (4개)	茅房寺 法主窟 花龍寺 凝石寺

위의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관련 문헌에서 확인되는 지리산 소재 사찰 및 암자는 총 155개소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찰의 수는 하동, 함양, 산청, 구례, 남원 지역 순으로 많았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찰의 소재지로 진주(晉州)를 기재하여 현재의 소재 행정 구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상으로 하였고, 이에

4) 조사 문헌은 다음과 같다. 『新增東國輿地勝覽』(1530년 간행), 『東國輿地志』(1656년 간행), 『韓國寺刹全書』(1979년 간행). 『韓國寺刹全書』는 『太古寺寺法』, 『東國輿地勝覽 佛宇條』, 『梵宇攷』, 『伽藍攷』, 『亂中雜錄』, 『李陸遊山記』 등의 문헌을 두루 살펴 전국의 사찰에 관한 내용을 망라한 책이다.

해당하는 사찰은 아방사를 비롯한 4개 사찰이다.

## 2.2 불서 개관 현황

지리산은 전라남도 구례군, 전라북도 남원시, 경상남도 산청군, 하동군, 함양군에 걸쳐 있는 총 면적 440.485km<sup>2</sup> 넓이의 산이다.

호남과 영남을 아우르는 지리산의 지리적 특성으로 말미암아 행정구역을 단위로 이루어진 기존의 사찰본 연구와는 다른 측면에서의 접근이 필요했다. 지리산 일대는 넓게 보면 주변의 행정 시·군 지역까지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지리산 소재 사찰의 범위를 제한할 기준이 필요했다.

간행본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므로 간행본의 간기를 우선 기준으로 하고, 간기를 통해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사찰의 위치를 실제 지도에서 확인하여 지리산 국립공원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연구 대상에 포함하였다. 즉, 간기에 ‘智異山’을 소재지로 기재한 사찰은 연구 대상에 모두 포함하였다.<sup>5)</sup> 지리산의 별칭인 ‘頭流山’, ‘方丈山’을 소재지로 기재한 사찰도 연구 대상에 모두 포함하였다. 연구대상본의 간기 분석 결과, 소재지로 ‘智異山’을 기재한 사찰이 20개소, ‘方丈山’을 기재한 사찰이 3개소였다. ‘智異山’과 더불어 ‘頭流山’으로 기재하기도 한 사찰은 실상사, 신흥사의 2개소였다.

벽송암은 사찰의 소재지로 ‘咸陽’을, 황령암은 사찰의 소재지로 ‘南原’을 기재하였으며 소재한 산명은 기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두 사찰 모두 지리산 국립공원 내에 소재하였던 사찰이므로 연구 대상에 포함하였다. 또한 견불암은 사찰의 소재지로 ‘金龍山’을 기재하였으나 사찰의 위치를 검토하여 연구 대상에 포함하였다. 이를 통해 26개의 지리산 소재 사찰에서 총 120종의 불서가 간행된 것으로 조사되어 이 120종을 연구 대상본으로 확정하였다.

지리산권 사찰본에 관한 연구는 영남과 호남 지역 사찰본 연구에서 포함되어

5) 사찰본은 刊行處를 기재할 때, 道名, 郡名, 山名, 寺名을 모두 기재한 것이 많다. 지리산 사찰 간행본 중 산명을 기재한 경우는 총 84종이다.

다루어진 바 있다. 남권희는 경상도 지역에서 간행된 사찰본에 대해 연대순으로 간행 현황을 개괄하였다.<sup>6)</sup> 이옥금은 사찰별·시기별·주제별 현황을 중심으로 호남 지역의 사찰본을 종합적으로 연구하였다.<sup>7)</sup> 이 두 논문의 연구 대상본에서 지리산 사찰본을 추출하여 필자의 연구 대상본과 비교하는 작업을 거쳤다. 대상본의 비교 현황은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先行 研究者의 對象本과의 比較 現況

嶺南 地域 寺刹本			湖南 地域 寺刹本		
南權熙(75종)	중복	64	李玉金(21종)	중복	17
	제외	11		제외	4
研究者(96종)	추가	32	研究者(24종)	추가	7

불서 간행 사찰의 현황을 행정구역과 존폐 여부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표 3>과 같고, 지도상의 위치는 <그림 1>과 같다.<sup>8)</sup>

<표 3> 寺刹別 開板佛書 現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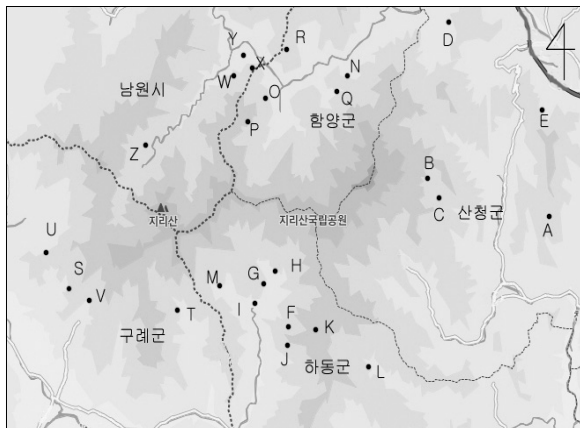
圏域	地域	寺刹名	지도상위치	存廢	刊行種數
경상도	산청(14종)	斷俗寺	A	廢	2
		大源庵	B	存	2
		三藏寺	C	廢	4
		王山寺	D	廢	4
		智谷寺(國泰寺)	E	存	2

6) 남권희, 「慶尙道 地域에서 刊行된 佛敎 書籍에 관한 研究」, 『함심 윤병태 박사 정년기념 논문집』 (민창문화사: 대전, 1999), 351-456.

7)李玉金, 「朝鮮朝 湖南 寺刹版에 關한 書誌의 研究」, (석사학위논문, 상명여자대학교 대학원, 1988).

8) 폐사된 사찰 중 현재 정확한 소재지를 알 수 없는 곳은 덕기사, 내원정사, 대암정사, 칠굴, 남대암의 5개소이다. 이 중 덕기사를 제외한 4곳의 사찰의 위치는 간행 불서들을 대조하여 내린 잠정적인 결론이다. 덕기사의 경우는 간행 불서를 통해 위치를 가늠하는 것조차 불가능하다. 그런데 14, 15세기 사찰본을 간행한 지역이 주로 함양지역이므로 이곳으로 배정하였다.

圏域	地域	寺刹名	지도상위치	存廢	刊行種數
경상도	하동 (69종)	國師庵	F	存	4
		南臺庵	G	廢	1
		能仁庵	H	廢	19
		神興寺	I	廢	28
		雙溪寺	J	存	7
		鐵堀	K	廢	5
		靑岩寺	L	存	1
	七佛寺(七佛庵)	M	存	4	
	함양 (13종)	見佛庵	N	存	1
		君子寺	O	廢	3
		德奇寺(德奇庵)	P	廢	3
		碧松庵	Q	存	5
		安國寺	R	存	1
전라도	구례 (17종)	甘露寺	S	存	2
		鷲谷寺	T	存	1
		煙觀寺	U	廢	1
		華嚴寺	V	存	13
	남원 (7종)	內院精舍	W	廢	1
		臺巖精舍(臺巖蘭若)	X	廢	3
		實相寺	Y	存	2
		黃嶺庵	Z	廢	1
합계		26개소			120종



<그림 1> 智異山 所在 佛書 開板 寺刹의 位置

지리산 지역에서는 산청 소재 사찰 5개소에서 14종, 하동 소재 사찰 8개소에서 69종, 함양 소재 사찰 5개소에서 13종, 구례 소재 사찰 4개소에서 17종, 남원 소재 사찰 4개소에서 7종의 불서가 간행되었다. 이와 같은 현황을 바탕으로 간행 불서의 시·군별 분석을 수행하였다.

### 3. 지역별 불서 개관의 양상

이 장에서는 지리산 소재 사찰 간행본 120종을 대상으로 지역별 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불서가 집중적으로 간행되었던 시기가 시·군별로 비교적 뚜렷하게 구별되는 것이 지리산 사찰본의 특징 중 하나이다. 이에 지역별 분석과 더불어 시기별 특징도 분석하고자 한다.

#### 3.1 산청 지역

산청 지역에서 불서를 개관한 사찰은 단속사, 대원암, 삼장사, 왕산사, 지곡사의 5개소이다. 산청 소재 사찰 간행불서의 현황은 <표 4>와 같다.

<표 4> 山淸 所在 寺刹의 開板 佛書

寺刹	書名
단속사	直註道德經(1527), 禪門拈頌集(1528)
대원암	大方廣佛華嚴經疏鈔(1690), 佛說四十二章經註(1748)
삼장사	佛說高王觀世音經(1710), 佛說金沙論(1718), 佛說四十二章經註(1718), 佛遺教經註(1718)
왕산사	注華嚴法界觀門(1713), 因明入正理論解(1714), 妙法蓮華經(1727), 妙法蓮華經(1734)
지곡사	大方廣佛華嚴經疏科文(1739), 月沙先生集辨認奏(1804)

산청 지역에서는 5개소의 사찰에서 총 14종의 불서가 간행되었다. 이 중 10종

이 18세기 전반 간행본으로서 산청 지역에서 불서 간행이 가장 활발했던 시기는 18세기 전반임을 알 수 있다.

산청 지역 사찰 중에서 가장 이른 시기에 간행본을 낸 곳은 단속사로서 단속사에서는 『直註道德經』과 『禪門拈頌集』 2종이 간행되었다. 『直註道德經』과 『禪門拈頌集』에는 모두 당대의 대선사였던 벽송지엄(碧松智嚴, 1464~1534)이 쓴 발문이 수록되어 있다. 『直註道德經』은 유·불·도 삼교의 사상적 일치를 주장한 원나라 몽산덕이의 저술이다. 몽산덕이의 또 다른 저술인 『蒙山和尚六道普說』, 『蒙山和尚法語略錄』은 그 간행 빈도가 높았던데 비해 『直註道德經』은 지리산 단속사 간행본이 유일한 판본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禪門拈頌集』은 깨우침을 위한 공안 모음집으로 보조지눌의 제자인 진각혜심(眞覺慧諶, 1178~1234)이 편찬하였다. 단속사 간행본 2종은 모두 어미가 없는 것을 비롯하여 고려본의 판식 특징을 계승한 모습이다. 『直註道德經』은 지엄의 제자인 일선(一禪), 석안(釋安), 영준(靈浚)이 모연(募緣)하여 간행하였는데 지엄은 2종의 불서를 간행하던 이 시기에 단속사에 머물렀던 것으로 보인다.

1690년에 대원암에서 간행된 『大方廣佛華嚴經疏鈔』는 비슷한 시기에 낙안 징광사에서 이루어진 간행 불사의 분각 활동의 하나인 것으로 보인다.<sup>9)</sup> 백암성총이 지은 징광사 간행본의 서문에 의하면 징광사의 승려들은 화엄경소초의 개관불사를 위해 각지로 분행(分行)하면서 모연하였다. 대원암 간행본 권77의 말미에는 대원암에서 각성된 후 금화산(金華山) 장중(藏中)으로 옮겨졌다는 기록이 있어 처음 각성할 때부터 징광사에 소장할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sup>10)</sup> 대원암 간행본의 발문은 성총의 후학인 석실명안(石室明眼, 1646~1710)이 썼고 대원암과 대원암 인근의 삼장사 문인들이 대거 간행에 참여하였다.

18세기 전반기는 산청 지역 사찰에서 불서 간행이 가장 활발하였던 시기이며

9) 낙안 징광사에서 간행된 『大方廣佛華嚴經疏鈔』는 1690년과 1700년 개판본이 있다.

10) 1690년 대원암 간행본의 권72 말미에는 白雲山의 黃龍寺에서 開刊되어 金華山 장중으로 옮겨졌다는 기록이 있다. 한편, 梵魚寺에서 1700년에 간행된 『大方廣佛華嚴經疏演義鈔』에도 ‘金井山 梵魚寺 分刻’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징광사 간행 불사의 분각 간행본임을 알 수 있다.

이들 사찰들의 간행 불사에는 공통된 배경이 있어 주목된다. 또한 이 시기에 산청 지역 사찰들은 하동, 구례 지역 사찰과 활발하게 교류한 것으로 나타나 흥미롭다.

왕산사에서 1713년에 간행된 『注華嚴法界觀門』에는 무용수연(無用秀演, 1651~1719)이 쓴 중간발문(重刊跋文)이 수록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설암[石室明眼]은 중국본 한 책을 얻어 이를 간행하고자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는데, 그의 뜻을 이어 사법제자인 심공(諶公)과 심표(心表)가 서휘(瑞輝) 상인과 함께 간행한 것이다.<sup>11)</sup> 명안의 제자들은 명안의 문인인 수연에게 발문의 작성을 요청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重刊’이라고 칭한 것은 중국본을 복각하여 간행하였기 때문이다. 이 책은 이전에 우리나라에서 간행된 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화엄경 주석서로 1739년에 지곡사(국태사)에서 『大方廣佛華嚴經疏科文』이 간행되었는데, 야눌(若訥)이 작성한 발문이 있어 간행 배경을 파악할 수 있다. 신유년[1681년]에 표착한 중국 배에서 大經疏鈔[華嚴經疏鈔]는 백암성충에 의해 간행되었으나, 玄談科圖는 아직 간행되지 않았다. 야눌의 문형인 우암공(雨巖公)은 우연히 얻은 科圖를 소장(私藏)하지 않고 제산문(諸山門)과 공유하고자 간행하였다.<sup>12)</sup>

『華嚴經』 이외 기타 경전에 대한 주석서의 간행도 활기를 띠었다. 1714년에 왕산사에서 『因明入正理論解』가 간행되었고, 1718년에는 삼장사에서 『佛說四十二章經註』와 『佛遺教經註』가 합철로 간행되었다. 『因明入正理論解』에도 무용수연의 발문이 붙어 있다. 법형인 석실명안이 신유년에 풍량을 당한 배에서 판본을 얻었는데, 이 책은 아직 개판된 바가 없어 사법제자인 심공이 스승의 뜻을

11) 重刊華嚴法界觀門跋. “華嚴法界觀門...我門兄雪崑公得唐本一冊 心重之歡 鋟梓而廣其傳 未果忽焉 嗚呼其嗣法諶公心表畢欲如其師之志 與瑞輝上人謀焉 輝劊剛好手自模板於法界觀門 結大因緣 其志願深矣 噫三心合同能事畢 可書此爲重刊法界觀門後跋.”

12) “吾東僻在海外 佛家書籍有未盡布 學者病焉 去辛酉唐舶漂至 大經疏鈔 幸爲栢巖老壽梓流行 而獨玄談科圖 一本 未獲登板 盖有所待於人與時也 一部玄談既摠括一經大義 科圖一冊又約盡 一部玄談誠敬學之司南 非此雖欲踵法界之磻經 無以頌其要而得其門也 我門兄雨巖公偶得於藏經中寶而重之道書 付劊剛以畢前人之餘功 嗚呼 尙哉 嘗觀世人得一新書 必秘而藏之採其華嚼其膏 以爲己有而取[讀]於人者多矣 今雨巖不爲私藏 公諸山門使其傳布無窮其用心之仁固可書也 而前摠攝機公鳩其財 通政釋仁公管其役贊成之亦不可泯也 略敘卷尾云爾.”

이어 간행하게 된 것이다.<sup>13)</sup> 삼장사에서 1718년에 합철로 간행된 『佛說四十二章經註』와 『佛遺教經註』 역시 간행 배경이 이와 유사하다. 신유년에 표류된 상선에 실려 있었던 책 중 다른 서적들은 이미 간행이 되었으나, 이 두 경만은 광포되지 않아 방장도인 두우(斗牛)가 사재를 털어 간행하게 되었다는 내용이 발문에 수록되어 있다.<sup>14)</sup> 두우는 1690년에 대원암에서 간행된 『大方廣佛華嚴經疏鈔』 권66에도 역할명 없이 기재되어 있어, 성종의 임자도 표착 불서의 간행 불사에 참여한 경력이 확인된다. 또한 그는 1710년 삼장사 간행본인 『佛說高王觀世音經』의 간행을 발원하기도 하였다.<sup>15)</sup>

이와 같은 발문 기록과 참여자 기록을 통해 18세기 전반기의 산청 지역 사찰 간행 불서의 주요한 특징을 몇 가지 확인할 수 있다. 이 시기 산청 지역 사찰본은 임자도에 표착한 중국 서적을 복각하여 간행한 판본이 다수이며 이 중에서도 특히 미간행된 서적을 간행하고자 노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산청 지역에서 18세기에 이러한 불사의 성격이 확인되는 이유는 1690년에 대원암에서 이루어진 정광사 수장을 위한 화엄경소초 분각활동이 그 발단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인근 사찰에서는 임자도 표착 불서의 중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던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 3.2 하동 지역

하동 지역에서 불서를 간행한 사찰은 국사암, 남대암, 능인암, 신흥사, 쌍계사,

13) 重刊因明論跋. “我東地偏一隅…欲廣傳法海而未由焉可傷也 己因明論者竺迦羅菩薩之所[述] 唐玄奘之所譯 而沙門真界之所解者也…我法兄石室公幸得於辛酉颶風 唐舶漂蕩之餘 未上板而西焉 其嗣法謹公繼其志 [鍊]諸方板公於一國 於佛恩師恩可謂知報者矣是爲跋.”

14) 重刊四十二章遺教二經跋. “右二經我世尊滅後…然而唐舶波風漂流游浦 所載經論皆已上板而 此二經 尚未廣布 業門旨訣其不幾於湮沒 而無耶方丈道人斗牛慨然而鉅諸梓 以爲倡明禪學之一助 豈有功於佛氏之遺教者豈小補哉 茲書跋語於卷尾以誠之云 崇禎後戊戌 方丈沙門 司允題.”

15) 跋. “…是故 斗牛禪師 發願鏤刻 流傳萬歲 以此功德 願予現生父母及多生父母…”

철굴, 청암사, 칠불사의 8개소이다. 하동 소재 사찰 간행 불서의 현황은 <표 5>와 같다.

<표 5> 河東 所在 寺刹의 開板 佛書

寺刹	書名
국사암	佛說大阿彌陀經(1903), 佛說大乘聖無量壽決定光明王如來陀羅尼經(1903), 妙法蓮華經心(1903), 법화영협(1903)
남대암	高峯和尚禪要(1539)
능인암	誠初心學人文(1603), 高峯和尚禪要(1603), 蒙山和尚法語略錄(1603), 發心修行章(1603), 禪源諸詮集都序(1603), 自警序(1603), 看話決疑論(1604), 高峯和尚禪要(1604), 大慧普覺禪師書(1604), 妙法蓮華經(1604), 法集別行錄節要并私記(1604), 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1604)圓頓成佛論(1604), 天地冥陽水陸齋儀纂要(1604), 請文(1604), 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1611), 禪門綱要集(1611), 禪門寶藏錄(1611), 圓頓成佛論(1611)
신흥사	護法論(1528), 景德傳燈錄(1536), 蒙山和尚法語略錄(1536), 蒙山和尚六道普說(1536), 發心修行章(1536), 自警序(1536), 大慧普覺禪師書(1537), 法集別行錄節要并私記(1537), 禪源諸詮集都序(1537), 地藏菩薩本願經(1537), 顯正論(1538), 妙法蓮華經(1545), 誠初心學人文(1547), 發心修行章(1547), 自警序(1547), 蒙山和尚法語略錄(1547), 佛說廣本太歲經(1549), 禪門拈頌集(1549), 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1564), 大慧普覺禪師書(1570), 禪宗永嘉集(1570), 釋迦如來行跡頌(1572), 誠初心學人文(1579), 蒙山和尚法語略錄(1579), 發心修行章(1579), 法集別行錄節要并私記(1579), 禪源諸詮集都序(1579), 自警序(1579)
쌍계사	大乘起信論疏筆削記會編(1695), 六離合釋法式通關(1695), 緇門警訓(1695), 華嚴懸談會玄記(1695), 般若波羅密多心經略疏竝書連珠記會編(1710), 百愚隨筆(1722), 止軒集(1874)
철굴	禪門綱要集(1531), 禪門寶藏錄(1531), 僧家日用食時默言作法(1531), 靈驗略抄(1531), 五大眞言集(1531)
청암사	高王觀世音經(乙巳)
칠불사	現行西方經(1531), 任性堂大師行狀(1657), 現行法會禮懺儀式(1710), 現行西方經(1710)

하동 지역 사찰에서는 총 69종의 불서가 간행되었다. 하동 지역 간행본은 청암사 간행본 1종을 제외하고 모두 화개곡(花開谷)에 위치한 사찰에서 간행되었다. 시기별로는 16세기 35종, 17세기 24종, 18세기 4종, 19세기 1종, 20세기 4종, 미상 1종으로 구분된다. 16세기 간행본, 즉 임란 이전 간행본이 다수를 차지한다.

16세기에는 신흥사 간행본이 28종이나 개판되었다. 16세기 간행본을 가지고

있는 철굴, 칠불사, 남대암 모두 신흥사 인근의 사찰이거나 신흥사의 암자였음을 감안한다면 신흥사를 중심 사찰로 하는 간행 불사가 이 시기에 매우 활발하였음을 알 수 있다. 신흥사는 적어도 1618년까지는 존속하였으나<sup>16)</sup> 간행본은 1579년이 마지막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신흥사 간행본 28종 중 21종은 선종류의 불서이다. 『誠初心學人文』, 『蒙山和尚法語略錄』, 『發心修行章』, 『自警序』의 4종의 불서는 비교적 짧은 분량과 초학자를 위한 입문서라는 공통된 성격으로 인해 1547년과 1579년에 합철로 묶여 간행되었다.

또한 신흥사에서는 사집과에 속하는 불서 중 『大慧普覺禪師書』 2종, 『法集別行錄節要并入私記』 2종, 『禪源諸詮集都序』 2종이 간행되었다. 특히 1537년이라는 이른 시기에 『高峯和尚禪要』를 제외한 3종의 사집과 불서가 신흥사에서 일시에 간행되어 주목된다. 2년 후인 1539년에 신흥사의 암자인 남대암에서 간행된 『高峯和尚禪要』를 포함하여 생각한다면 사집과에 해당하는 불서 전체가 2~3년 사이에 간행된 것이다. 이들 불서의 간행에는 벽송지엄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벽송지엄은 배움을 위한 필수 교재로써 사집과 불서를 처음 지목하여 강조하였다. 그의 제자로 알려진 원오(圓悟), 영관(靈觀)이 간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 지엄이 사집과 불서를 강조한 이후 제자들이 스승의 뜻을 받들어 실제 간행으로 옮긴 것임을 알 수 있다.

임란 직후인 1603년에서 1611년까지의 시기에는 능인암에서 대대적인 불서 간행이 있었다. 이 시기의 간행 불사는 부휴선수(浮休善修, 1543~1615)<sup>17)</sup>와 그의 문도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선수는 1603년에 간행된 『誠初心學人文』, 『高峯

16) 趙緯韓 『玄谷集』, 『遊頭流山錄』(1618년)에 따르면 신흥사는 당시에 폐사되지 않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吳斗寅 『陽谷集』, 『頭流山記』(1651년)에는 1624년에 폐사하게 되었음을 기록하고 있다(최석기 외, 『용이 머리를 숙인 듯 꼬리를 치켜든 듯』 서울: 보고사, 2008, 143).

17) 浮休善修는 속성은 金氏이며 南原 葵樹人이다. 일찍이 출가하여 지리산 信明長老에게 득도되고, 뒤에 부용당 영관의 심법을 얻었다. 그의 인품과 덕화에 道를 묻는 자가 항상 700여 명에 이르렀다. 1615년에 73세의 나이로 칠불암에서 입적하였다(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소, 『韓國佛教撰述文獻總錄』, 동국대학교출판부, 1976, 177).

和尚禪要』, 『禪源諸詮集都序』와 1604년에 간행된 『看話決疑論』, 『大慧普覺禪師書』, 『圓頓成佛論』, 『法集別行錄節要并私記』의 간행에 ‘大禪師’의 직위로 참여하였다. 1604년의 『高峯和尚禪要』, 『大慧普覺禪師書』 등에는 선수의 제자인 각성이 ‘校正’으로 참여하였다. 1611년 간행본들에서는 선수와 각성의 이름을 찾아볼 수 없다. 선수는 1609년에 응선화상(應禪和尚)의 요청으로 송광사로 초빙되어 송광사에서 1610년 3월에 『禪家龜鑑』을 간행하였다. 1611년 4월에 지리산을 유람한 유몽인이 남긴 『遊頭流山錄』에 의하면 이때 선수는 영원암에 주석하고 있었다. 따라서 1603년과 1604년의 능인암 간행본들은 선수와 각성이 주도하여 개판된 것이며 1611년 간행본들은 송광사로 이동하지 않고 능인암에 남아 있던 제자들에 의해 개판된 것으로 추측된다.

능인암에서 이처럼 짧은 기간에 대대적인 간행 불사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임란 이후 승려들의 교육적 욕구가 증가하였던 반면, 실제 강학에 필요한 교재가 극히 부족하였던 상황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간행된 불서들은 강원에서 승려들의 교육적 목적으로 이용되는 서적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또한 능인암 간행 불서 19종 중 17종이 ‘能仁菴開刊移鎮雙溪(寺)’라는 간기가 각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임란 직후 능인암은 쌍계사의 불서 간행을 대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즉, 능인암은 원래 쌍계사 인근의 작은 사찰 혹은 암자였는데, 승려들의 교육에 필요한 서적을 위해 소실된 쌍계사를 대신하여 불서 간행의 역할을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쌍계사는 1632년 각성에 의해 중건되면서 본래의 중심적인 기능을 되찾았으며 이에 따라 능인암의 지위는 본래의 자리로 돌아갔던 것으로 생각된다.

17세기 후반과 18세기 초기에는 쌍계사의 간행 활동이 활발해졌다. 이 시기에 쌍계사에서 간행된 불서는 1종을 제외하고 모두 백암성총과 석실명안의 간행 활동과 관련된다.

성총은 임자도에 표착한 상선에서 얻은 불서를 낙안 징광사와 쌍계사에서 대대적으로 간행하는 불사를 일으켰다.<sup>18)</sup> 『大乘起信論疏筆削記會編』, 『六離合釋法

18) 백암성총의 불서 간행에 대해서는 다음 두 논문이 참고가 된다. 이종수, “숙종 7년 중국선박

式通關』과 『緇門警訓』은 중국본을 토대로 성충이 새로 편찬하여 개관하였으며, 『華嚴懸談會玄記』는 중국본을 그대로 복각한 것이다. 『大乘起信論疏筆削記會編』은 사원(士元)이 서사하였고 삼기(三機)가 중정(重訂)하여 간행하였고, 『華嚴懸談會玄記』 역시 삼기가 교정으로 참여하였다.

『般若波羅密多心經略疏竝書連珠記會編』은 석실명안이 편찬하였으며, 칠불원의 사미인 단숙(端肅)이 서사하고 원조(圓照), 태휘(太暉), 환성지안(1664~1729)이 인권(引勸) 겸 교대(校對)로, 무용수연이 교증(校證)으로 참여하였다. 『百愚隨筆』은 석실명안의 문집으로 제자인 단숙이 간행을 주도하였다. 백우수필의 서문은 하세응(河世應)이, 후서는 신명구(申命壽)가 각각 지었다.

16세기의 신흥사와 인근의 남대암, 철굴, 칠불사, 그리고 17세기 초반의 능인암에서 간행된 불서의 공통된 성격은 승려들의 교육과 강학을 위한 서적이라는 점이다. 이를 통해 하동 지역 사찰들은 16세기와 17세기 초반에 지리산 일대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 3.3 함양 지역

함양 지역에서 불서를 간행한 지리산 소재 사찰은 견불암, 군자사, 덕기사, 벽송암, 안국사의 5개소이다. 간행 불서의 간기에 의하면 덕기사는 소재지로 ‘智異山’만을 밝히고 있고 사찰의 연혁에 대한 기록을 찾을 수 없어 소재지를 함양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15세기 이전에 불서를 간행한 바 있는 견불암과 군자사가 모두 함양 소재인 점을 근거로 덕기사의 소재지를 함양으로 추정하였다. 함양 소재 사찰 간행 불서의 현황은 <표 6>과 같다.

---

의 표착과 백암성종의 불서간행,” 『불교학연구』 제21호(2008. 12), 259-295. 조명제, “백암성종의 불전 편찬과 사상적 경향,” 『역사와 경계』 제68집(2008. 9), 89-114.

<표 6> 咸陽 所在 寺刹의 開板 佛書

寺刹	書名
견불암	六經合部(1462)
군자사	六經合部(세종연간), 青梅集(1633), 妙法蓮華經(1636)
덕기사	高峯和尚禪要(1399), 誠初心學人文(1400), 牧牛子修心訣(1400)
벽송암	四分律七聚大目抄(1797), 梵網經盧舍那佛說心地法門品菩薩戒本(1797), 受菩薩戒法門(1797), 地藏菩薩本願經(1797), 鏡巖集(1804)
안국사	妙法蓮華經(1685)

함양 지역 사찰에서는 총 13종의 불서가 간행되었다. 시기별로는 14세기 간행본 3종, 15세기 간행본 2종, 17세기 간행본 3종, 18세기 간행본 4종, 19세기 간행본 1종으로 세분된다.

덕기사 간행본은 지리산 일대 사찰 중에서 그 간행 시기가 가장 빠르다. 덕기사에서는 1399년에 『高峯和尚禪要』를, 1400년에는 『誠初心學人文』과 『牧牛子修心訣』이 합철로 간행하였다. 『高峯和尚禪要』는 1358년 원(元)의 오군(吳郡)의 남선집운정사(南禪集雲精舍)에서 중각한 판본을 덕기사에서 복각한 것으로, 조선시대에 간행된 『高峯和尚禪要』 판본 가운데 최고본에 해당한다. 『誠初心學人文』과 합철로 간행된 『牧牛子修心訣』의 권말제 다음 행에는 ‘大德九年(1305)乙巳七月日誌’라는 구간기가 있고 ‘第十代開板’과 ‘建文二年(1400)八月日誌 智異山德奇庵重刊’이라는 신간기가 있어, 1305년에 개판된 고려본을 1400년에 복각·중간하였음을 알 수 있다.

군자사에서는 세종연간에 『六經合部』가 간행되었다. 예전에 평양부윤 成君[成達生]이 불도를 신봉하여 손수 6권을 쓰고 침재하여 유통하게 하여 그 이택이 무궁하였다. 지리산 군자사의 홍선(弘禪) 도인이 이제 이 경전을 중각하여 유통시키고자<sup>19)</sup> 간행하였다. 즉, 성달생이 필서한 『六經合部』 초간본이 1424년에

19) 『觀世音菩薩禮文』의 후기. “此六卷經者 成佛之捷徑 初學之先務也 故凡入佛知見者 莫不由斯而進 是以古今世人 尤爲崇信也 向平壤府尹成君信奉斯道 手書六卷 俾綴于梓流 傳於世 利澤無窮 今智異山君子寺道人弘禪 於此經中 信心堅固 行願圓滿 情互重刻 印施流通.”

안심사에서 개관된 이래, 군자사에서 홍선 도인의 간선(幹善)을 바탕으로 『六經合部』가 간행된 것이다. 1633년에는 청매인오의 문집인 『青梅集』이, 1636년에는 『妙法蓮華經』이 간행되었다. 『青梅集』의 발문은 당시 영원암(靈源庵)<sup>20)</sup>에 머물고 있던 인오의 제자 쌍운(雙運)에 의해 작성되었다. 서문은 지곡사에서 간행된 바 있는 『月沙先生集辨誣奏』의 저자이자 조선 중기 4대 문장가의 한 명으로 꼽히는 이정구(李廷龜, 1564~1635)가 지었다. 『青梅集』의 목관은 1636년에 양산 통도사로 옮겨졌다.<sup>21)</sup>

『六經合部』는 1462년 건불암에서도 간행되었는데, 노백동(盧伯叞)과 대선사의계(義戒), 눌이(訥伊), 자징(自澄)이 대시주로 간행을 주도하였다. 전만년사주지(前萬年寺住持) 대선사 의일(義一), 도인 계추(戒樞)와 전지곡사주지(前智谷寺住持) 대선사 성민(性敏)과 도인 죽근(竹根), 대선사 잠월(岑月)이 각수로 참여하였고, 연관은 대선사 상경(尙敬)이 맡았다. 대선사의 높은 지위에 있는 승려들이 각수와 연관 등의 실무 역할을 맡은 것이 특이하다.

안국사에서는 1685년에 『妙法蓮華經』이 간행되었다. 봉래산인(蓬萊山人) 풍계명예(楓溪明譽, 1640~1708)의 발문에 따르면 1683년에 시작하여 1685년에 간행을 마쳤다.<sup>22)</sup>

벽송암에서는 1797년에 『四分律七聚大目抄』, 『梵網經盧舍那佛說心地法門品菩薩戒本』, 『受菩薩戒法』이 합철로 간행되었고, 같은 해에 『地藏菩薩本願經』도 간행되었다. 1797년에 벽송암에서 간행된 4종의 불서는 모두 벽송암에서 개관되어 안의(安義) 영각사(靈覺寺)<sup>23)</sup>로 이진(移鎮)되었다. 1804년에는 벽송암의 불서 간행을 주도한 승려 경암응운(鏡巖應允, 1743~1804)의 문집인 『鏡巖集』이 간행되었다.

20) 지금의 靈源寺로서 함양군 마천면 삼정리에 위치한 사찰이다.

21) 통도사 소장 목판 1판. 간기: 崇禎9年(1636)正月日梁山通度南庵樓板傳於智異山君子寺(박상국, 『全國寺刹所藏木板集』, 서울: 문화재관리국, 1987, 364).

22) 간기에는 사찰의 명칭이 ‘安旺寺’라고 표기되어 있다. ‘旺’자는 ‘國’자의 이형자(異形字)인데, 간혹 이를 ‘왕’으로 독음한 사례가 보이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책판은 함양 벽송사에 소장되어 있으며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315호로 지정되었다.

23) 함양군 서상면 덕유산 자락에 위치한 사찰이다.

함양 지역의 사찰에서 간행된 불서는 지리산권의 다른 지역에 비해 그 수가 적은 편이지만, 14·15세기 간행본은 오직 함양 지역 사찰에서만 확인된다. 함양 지역 사찰은 조선 초기에 지리산 일대 불교계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 3.4 구례 지역

구례 지역에 소재한 사찰 중에서 불서를 간행한 사찰은 감로사, 연곡사, 연관사, 화엄사의 4개소이다. 구례 소재 사찰 간행 불서의 현황은 <표 7>과 같다.

<표 7> 求禮 所在 寺刹의 開板 佛書

寺刹	書名
감로사	天地冥陽水陸齋儀纂要(1636), 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1638)
연곡사	釋迦如來成道記(1655)
연관사	妙法蓮華經(1582)
화엄사	勸念要錄(1637), 湖南道求禮縣智異山大華嚴寺事蹟(1697), 佛說長壽滅罪護諸童子陀羅尼經(1699), 佛說壽生經(1717), 金剛般若波羅密經(1718), 佛說預修十王生七經(1718), 水月道場空花佛事如幻賓主夢中間答(1721), 歸元直指集(1724), 寶王三昧念佛直指(1724), 准提淨業(1724), 佛像功德因果說(1777), 浮休堂大師集(1920), 天罡時課(연대미상)

구례 지역 사찰에서는 총 17종의 불서가 간행되었다. 시기별로는 16세기 1종, 17세기 6종, 18세기 8종, 20세기 1종, 미상 1종으로 세분된다.

연관사에서는 1582년에 『妙法蓮華經』이 간행되었다. 간행에 참여한 탄연(坦衍)을 비롯한 각수들은 하동의 신흥사와 능인암 간행본에서도 이름이 확인된다. 16세기에 구례 지역에서는 개관 불사가 활발하지 않았던 점으로 미루어볼 때 연관사의 개관 불사는 하동 지역 사찰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구례 지역에서는 화엄사 간행본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1724년본 『歸元直指集』, 『寶王三昧念佛直指』, 『准提淨業』은 일심(一諷), 순학(順學) 등이 모연하였

다. 일심은 지리산과 조계산 일대에서 准提와 念佛直指와 歸元直指의 三本經을 우연히 얻게 되었다. 석자(釋者)라면 이를 암송하고 익혀야 하기에 뜻을 같이 하는 순학 등과 함께 간행한 것이다.<sup>24)</sup> 이들 세 종의 불서는 일찍이 간행된 바가 없었던 서적으로, 판식의 특징을 고려해보면 이들 불서는 중국에서 수입된 서적을 바탕으로 복각 간행된 것임을 알 수 있다.

『水月道場空花佛事如幻賓主夢中問答』은 허응당 보우(虛應堂 普雨, 1515~1565)의 저술로 의식도량의 관법에 대하여 문답의 형식으로 서술한 책이다. 상월 세봉(霜月 璽封, 1687~1767)이 서문을 쓰고, 환성지안, 영해약탄(影海若坦, 1668~1754), 남악태우(南岳泰宇, ?~1732) 등이 간행에 참여하였다. 명종대(1545~1567)의 고승 보우의 저술이 그의 사후 150여 년이 흐른 시점에 당대의 명망 있는 대선사들에 의해 간행되어 주목된다.

화엄사의 인근에 위치한 감로사(천은사)에서는 조선시대에 널리 설행되었던 수록재 관련 불서가 2종 간행되었다. 『天地冥陽水陸齋儀纂要』와 『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는 수록재에 대한 모든 의식과 절차를 모은 의식서이다.

연곡사에서는 1655년에 『釋迦如來成道記』가 간행되었다. 이 책은 당대(唐代)의 시인인 왕발(王勃, 649~676)이 쓴 『釋迦如來成道記』에 대해 당나라의 혜오대사(慧悟大師)와 도성(道成)이 주를 달아 쓴 것을 최육천(崔育千)이 서문을 짓고 편찬한 책이다. 각성이 간행을 주도하고 도영(道英)이 화주를 담당하였으며 명안(明晏)이 서사하여 간행하였다.

구례 지역에서는 화엄사 간행본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화엄사는 17·18세기 간행본이 대다수이며 일반적으로 사찰 간행본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선종류 불서를 단 한 종도 간행하지 않은 점이 특징이다. 반면 『歸元直指集』, 『寶王三昧念佛直指』, 『佛像功德因果說』과 같은 정토종류, 『佛說長壽滅罪護諸童子陀羅尼經』, 『准提淨業』과 같은 밀교경류, 『勸念要錄』과 같은 영험류, 『佛說預修十王

24) 龍谷一謙跋. “噫余早學西法 全象難見佛法絕紐之世濫 吹齊門年登五十斗覺處玉之知非 放教修禪 共浮雲短筇隨緣 落南智異曹溪南中勝地 遙往棲止而偶得准提念佛直指歸元直指三本經之利寶 國之所無者凡爲釋子者不可不誦習而依行 故與同志順學等募緣鉸梓 以廣其傳所冀聖壽天長邦基地久慧風常扇 佛日長明十方 施主以此功德皆登彼岸.”

生七經』과 같은 재의식류 불서들이 다수 간행되었다. 또한 『勸念要錄』, 『水月道場空花佛事如幻賓主夢中間答』, 『佛像功德因果說』과 같은 국한문혼용 불서가 간행되어 민중의 종교적 요구에 부합하는 특색을 보이고 있다.

### 3.5 남원 지역

남원 지역 사찰에서 불서를 간행한 사찰은 내원정사, 대암정사, 실상사, 황령암의 4개소이다. 사찰 간행 불서의 현황은 <표 8>과 같다.

<표 8> 南原 所在 寺刹의 開板 佛書

寺刹	書名
내원정사	大方廣佛華嚴經疏鈔(1774)
대암정사	龍潭集(1768), 大方廣佛華嚴經普賢行願品疏(1774), 大方廣佛華嚴經疏鈔(1774)
실상사	南岳集(1753), 大方廣佛華嚴經疏鈔(1777)
황령암	大方廣佛華嚴經疏演義鈔(1773)

남원 지역 사찰에서는 총 7종의 불서가 간행되었다. 7종이 모두 18세기 후반에 간행되었다.

이 중 5종의 불서가 1770년대에 이루어진 『華嚴經疏鈔』의 간행 불사에 해당된다. 1770년의 화재로 인해 징광사에 수장되어 있던 화엄경판이 소실되게 되었다. 이를 안타까워한 설파상언(雪坡尙彦, 1707~1791)<sup>25)</sup>의 발원으로 대암정사를 중심으로 화엄경소초의 재간행 불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1773년과 1774년에 황령암, 내원정사<sup>26)</sup>에서 이루어진 『華嚴經疏鈔』 간행 불사도 이 재간행 불사의

25) 雪坡尙彦은 속성은 李氏이며 湖南 茂長人이다. 禪雲寺로 가서 祝髮하고 뒤에 蓮峯과 虎巖에게 수학하였으며 晦菴에게 參學하였다. 그는 三乘五教에 통하지 않은 바가 없었으나 특히 華嚴에 뛰어났으며, 念佛을 일과로 하기 10여 년인 1791년에 85세로 입적하였다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소, 『韓國佛教撰述文獻總錄』, 동국대학교출판부, 1976, 205).

26) 내원정사는 그 위치를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1777년에 실상사에서 간행된 『大方廣佛華嚴經疏鈔』에 ‘雲峯縣智異山實相寺內院’이라는 간기가 있어, 실상사의 암자였을 가능성이 높다.

일환인 것으로 보인다.

대암정사를 중심으로 진행된 『大方廣佛華嚴經疏鈔』<sup>27)</sup>의 재간행 불사는 그 방대함으로 인해 주변의 사찰들이 분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권 65와 권 66은 내원정사에서 판각하였다. 권60-1 말미에는 ‘順天海川寺同願成此卷’이라는 기록이 있어 순천의 해천사(海川寺)가 권60-1을 간행하는데 도움을 주었음을 알 수 있다. 대암정사 판본과 내원정사 판본은 형태적 특징이 매우 유사하며 간행 참여자 역시 화주로 달성(達性)이, 교대(校對)로 채구(采玖)가, 도감(都監)으로 서령(瑞玲)이 참여한 것이 동일하다. 내원정사뿐만 아니라 대암정사 인근의 많은 사찰들이 이 재간행 불사에 참여하였는데, 권78의 권말에 있는 제산대선사질(諸山大禪師秩), 권79의 권말에 있는 각사찰명(各寺刹名)이 수록되어 있다.<sup>28)</sup> 이 사찰들이 모두 간행불사에 직접 참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시주, 동원 등의 간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형태로 간행 불사에 뜻을 함께 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실상사에서 1777년에 간행된 『大方廣佛華嚴經疏鈔』의 참여자 중 체민(休旻), 취화(就和), 행겸(幸兼) 3명은 대암정사에서 1774년에 간행된 『大方廣佛華嚴經疏鈔』에 참여하였던 인물들이다. 실상사 간행본의 ‘化主’로 참여한 체민은 대암정사 간행본의 ‘施主’로 참여하였고, 실상사 간행본의 ‘持殿’으로 참여한 취화는 대암정사 간행본의 ‘誦呪’로 참여하였다. 실상사 간행본의 ‘梵音’으로 참여한 행겸은 대암정사 간행본의 ‘供養主’로 참여하였던 경력이 있다. 따라서 대암정사와 실상사는 인근에 위치하였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된다. 실상사 간행본은 권 52-1, 권52-2가 현전할 뿐인데, 대암정사 간행본을 복각한 것으로 판단된다.

황령암에서 계사년에 간행된 『大方廣佛華嚴經疏演義鈔』는 판식의 특징으로 보아 대암정사 간행본과 시기가 비슷함을 알 수 있고, 이 때문에 1773년 간행본으로 추정된다.

27) 卷1의 권수제는 ‘大方廣佛華嚴經疏序演義鈔’이며, 그 외 권의 권수제는 ‘大方廣佛華嚴經疏鈔’이며, 卷1의 판심제는 ‘華嚴玄談’이다.

28) 제산대선사질에 수록된 승려는 총 33명이다. 默庵寂訥, 連潭有一, 惠庵玠藏 등 고승들의 이름이 보인다. 각사대시주질에 기재된 사찰은 대부분 경상남도과 경상북도 지역의 주요한 사찰들이다.

대암정사에서 1774년에 간행된 『大方廣佛華嚴經普賢行願品疏』는 권1 상, 하로 이루어져 있으며 권1 상의 말미에 중간 간기가 있다. ‘比丘瑞玲捨財刊成行願品一卷’이라는 기록이 있어 서령이 사재를 털어 간행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같은 해 대암정사에서 간행된 『大方廣佛華嚴經疏鈔』에 교대의 역할로 참여한 체우(体宇), 경현(景賢), 채구(采玖)의 이름이 동일하게 보이며 관식도 유사하여 『大方廣佛華嚴經疏鈔』와 함께 간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간본은 1700년에 징광사에서 간행된 책을 저본으로 한 것으로 보이며 징광사 간행본에는 수록되어 있는 이합범례(釐合凡例), 음석(音釋), 성충(性聰)의 후서가 대암정사 간행본에는 빠져 있다.

2종의 승려 문집이 실상사와 대암정사에서 간행되었다. 실상사에서는 1753년에 남악태우의 문집인 『南岳集』이 간행되었다. 병암(屏巖)이 지은 서문에 의하면 1751년에 지리산인(智異山人) 재초(在初)가 금산사(金山寺)에 남악대사의 비와 부도를 세웠는데, 이제 유문을 모아 기궤(劄記)하고자 남악대사의 시안을 만들게 된 것이다.<sup>29)</sup> 남악대사의 동문인 상월새봉은 조연으로 간행에 참여하였고, 진곡 재초는 제자질에 이름을 올렸다. 대암정사에서는 1768년에는 영조대의 승려 조관(槩冠, 1700~1762)<sup>30)</sup>의 문집 『龍潭集』이 간행되었다. 후록에 의하면 정해년(1767)에 감로사에서, 무자년(1768)에는 파근사에서, 기축년(1769)에는 실상사에서 공동으로 선사의 제사를 지냈다고 한다. 이를 통해 감로사, 파근사, 실상사가 모두 조관의 활동 사찰이었음을 알 수 있다. 책관은 감로사의 영각으로 이동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sup>31)</sup>

남원 지역 사찰본은 1770년대에 이루어진 『華嚴經疏鈔』의 재간행 불사가 중심을 이룬다. 설파상언의 발원으로 시작된 이 불사는 대암정사가 주도하고 인근의 황령암, 내원정사가 협력했으며, 경상남·북도의 주요 사찰들의 동원(同願)과

29) 南嶽大師詩集序：“紀元後再回辛未陽月十五日戊寅 智異山人在初 以書報余曰 南岳大師碑浮屠立於金山寺 今方哀集遺文 將付劄記 願左右 毋惜 金玉之音 以寵榮吾先師 如何云…遂記其師門相傳之次 以爲南岳大師詩案.”

30) 행장에 따르면 대사의 法諱는 槩冠이고 字는 無懷이다. 龍潭은 호이고, 속성은 金氏이며 남원 출신이다.

31) 『龍潭集』 간기: 刊板于智異山臺巖庵移置于甘露寺影閣中.

시주가 함께하였다.

#### 4. 개관참여자의 교류활동

지리산 내 사찰 간에는 다양한 형태의 인적, 지적, 기술적 교류가 빈번하게 이루어졌다. 간행본을 통해 교류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방법은 비슷한 시기에 간행된 사찰본에 참여한 승려들의 중복여부와 그 빈도를 확인하는 작업을 통해서이다. 이를 위해 서로 다른 사찰 간행본에서 동일한 역할 혹은 관련이 있는 유사한 역할을 한 동명인을 조사하였다. 간행본에 참여한 연판, 서사, 각수, 교정 등의 기능인들은 물론 간행 주도자인 간선, 화주, 인권, 모연 등의 조연자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였다.

간선, 화주, 인권, 모연은 넓게 보았을 때 간행의 필요성을 홍보하여 시주를 이끌어내는 임무였으므로 이들의 역할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중복여부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화주에서 1건의 교류 사실이 확인되었다.<sup>32)</sup>

간행에서 실무를 담당한 기능인들의 경우, 서사, 교정을 담당한 인물에서는 확인할 수 있는 교류 사실이 없었다. 각수, 연판자의 경우는 서로 다른 사찰의 간행본에 중복 참여한 인물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지리산 사찰 간의 교류 내용에서 핵심이 되는 부분은 각수, 연판자들의 사찰 간 중복 참여의 정도이다.

판각을 위해 서사자가 판각용 정서본을 마련하고 연판자가 판각에 쓰일 판목을 다듬어 준비하면 각수는 각 책장을 판목 위에 뒤집어 붙이고 글자체의 자획과 판식을 그대로 새겨낸다.<sup>33)</sup> 지리산 소재 사찰 간행본에서 각수의 역할명은 刻, 刻工, 刻士, 刻員, 刻字, 刊刻, 刊字, 刀, 成字 등으로 다양하게 표기되었다.

지리산에 소재하는 사찰의 개관본에는 258명의 각수가 활동하였고, 이들에

32) 達性은 1774년의 대암정사와 내원정사의 간행본에 화주로 참여하였다. 달성의 중복 참여는 대암정사와 내원정사에서 1774년에 이루어진 「대방광불화엄경소초」의 간행 불사가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진행되었음을 보여준다.

33) 천혜봉, 『한국서지학』, (서울: 민음사, 1997), 159.

의해 총 361회에 걸친 판각활동이 이루어진 것으로 집계된다. 이 중 2개 이상의 사찰에서 판각에 참여한 각수의 활동 양상은 <표 9>와 같다.

<표 9> 刻手의 板刻活動

刻手	寺刹	書名	開板年代	役割名稱
見學	칠불사	現行西方經	1710	刊刻
	화엄사	准提淨業	1724	刻手秩
敬熙 (敬希)	신흥사	大慧普覺禪師書	1537	刻手秩
	신흥사	法集別行錄節要并入私記	1537	刻士秩
	신흥사	地藏菩薩本願經	1537	刻手
	신흥사	顯正論	1537	刻字
	남대암	高峯和尚禪要	1539	刻手秩
	신흥사	妙法蓮華經	1545	刻手秩
	신흥사	法集別行錄節要并入私記	1579	刻
	戒心	철굴	禪門寶藏錄	1531
	철굴	五大眞言集	1531	刻手秩
	신흥사	蒙山和尚法語略錄	1536	刻手秩
	신흥사	地藏菩薩本願經	1537	刻手
戒珠	철굴	禪門寶藏錄	1531	刻手
	철굴	五大眞言集	1531	刻手秩
	신흥사	蒙山和尚法語略錄	1536	刻手秩
	신흥사	蒙山和尚六道普說	1536	刻手
順學	쌍계사	華嚴懸談會玄記	1695	刻工
	화엄사	湖南道求禮縣智異山大華嚴寺事蹟	1697	刻字
信崇	신흥사	蒙山和尚法語略錄	1536	刻手秩
	신흥사	蒙山和尚六道普說	1536	刻手
	신흥사	地藏菩薩本願經	1537	刻手
	신흥사	顯正論	1538	刊字
	남대암	高峯和尚禪要	1539	刻手秩
	신흥사	妙法蓮華經	1545	刻手秩
	신흥사	誠初心學人文	1547	刻手
信一	쌍계사	華嚴懸談會玄記	1695	刻工
	지곡사	大方廣佛華嚴經疏科文	1739	刻手秩
卓梅	칠불사	現行西方經	1710	刊刻
	왕산사	妙法蓮華經	1727	刻秩

刻手	寺刹	書名	開板年代	役割名稱
坦衍	신흥사	誠初心學人文	1579	刻字
	연관사	妙法蓮華經	1582	刻手秩
行淨 (幸淨)	화엄사	准提淨業	1724	刻手秩
	왕산사	妙法蓮華經	1727	刻秩
惠聰	남대암	高峯和尚禪要	1539	刻手秩
	신흥사	妙法蓮華經	1545	刻手秩

위의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2개 이상의 사찰에서 각수로 활동한 인물은 견학(見學)을 비롯한 총 11명이다. 계심(戒心)과 계주(戒珠)는 철굴과 신흥사 간행본에 각수로 참여하였다. 철굴은 신흥사의 암자로 이들은 암자인 철굴에서 먼저 활동한 후 본사인 신흥사로 옮겨간 것으로 보인다. 경희(敬熙)<sup>34</sup>와 신숭(信崇)은 신흥사 간행본 6종에 각수로 참여한 것으로 보아 신흥사에서 주로 활동하였던 인물들이다. 이들은 1539년에는 신흥사의 암자인 남대암 개관본에도 각수로 참여하였다. 남대암에서 경희와 신숭과 함께 각수로 참여한 혜聰(惠聰)은 1545년에 신흥사에서 『妙法蓮華經』의 간행에 참여하였다. 이상의 각수들의 교류를 통해 볼 때, 신흥사와 암자들 간의 협력이 공고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순학(順學)과 견학(見學)은 하동 지역인 쌍계사와 칠불사에서 각각 활동하다가 화엄사로 옮겨간 경우에 해당된다. 순학은 1695년에 쌍계사에서 『華嚴懸談會玄記』의 판각에 참여하였고 2년 후에 있었던 화엄사 개관본인 『湖南道求禮縣智異山大華嚴寺事蹟』에도 각수로 참여하였다. 『華嚴懸談會玄記』는 성총이 간행을 주도한 불서이며, 『湖南道求禮縣智異山大華嚴寺事蹟』은 성총이 편찬하여 간행한 불서이다. 따라서 순학은 성총을 따라 화엄사로 이동하여 판각 활동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sup>35</sup>

견학은 석실명안이 주도한 1710년 칠불사 개관본인 『現行西方經』을 판각하였고 1724년의 화엄사 개관본인 『准提淨業』에도 참여하였다. 견학의 이동을 근거

34) 남대암 간행본에는 ‘敬希’란 이름으로 기재되었는데, 동일인으로 판단하였다.

35) 1717년, 1718년, 1724년에 화엄사에서 간행된 불서에 화주로 여러 차례 참여한 順學과 동일 인물인지는 확인할 수 없으나, 개연성이 없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로 『准提淨業』과 같은 해에 간행된 『歸元直指集』, 『寶王三昧念佛直指』는 쌍계사, 칠불사 간행 불사의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신일, 탁매, 행정은 각각 쌍계사, 칠불사, 화엄사에서 활동하다가 산청 지역의 사찰로 옮겨간 각수들이다. 신일(信一)은 1695년에 쌍계사에서 간행된 『華嚴懸談會玄記』와 1739년에 지곡사에서 간행된 『大方廣佛華嚴經疏科文』의 간행에 참여하였으므로 쌍계사에서 지곡사로 옮겨간 것으로 보인다.

탁매(卓梅)는 1710년의 칠불사 간행본에서, 행정(行淨)은 1724년의 화엄사 간행본에서 각각 활동한 바 있다. 그들은 1727년에는 모두 왕산사에서 간행된 『妙法蓮華經』에 각수로 참여한 것으로 확인되어 주목된다. 이는 『妙法蓮華經』이 비교적 거질인 이유로 이들이 왕산사의 간행 불사에 초빙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쌍계사, 칠불사, 화엄사에서 활동하다가 산청 지역의 사찰로 옮겨간 이들 각수들의 이동을 통해 17세기 후반과 18세기 초기 하동 지역 사찰과 산청 지역 사찰 간의 교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이 시기에 지리산 일대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사찰 간의 인적, 기술적 교류가 더욱 활발하였을 것을 추정할 수 있다.

탄연(坦衍)은 1579년에 신흥사에서 『誠初心學人文』을 각자하였고, 3년 후인 1582년에 구례로 이동하여 연관사에서 『妙法蓮華經』을 각자하였다. 탄연 외의 승려는 다른 간행본에서 각수로 참여한 기록이 없으나, 도명, 신경, 성은, 천은, 덕호는 신흥사 간행본과 능인암 간행본에 역할명 없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sup>36)</sup> 탄연을 비롯한 이들 승려들의 활동을 통해 16세기에 하동의 신흥사와 구례의 연관사 사이에 인적 교류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각수가 글자를 새길 판목을 마련하기 위해 鍊板을 담당한 사람은 목재를 취해 판목을 켜고 썬서 말린 다음 대패질하여 마구리를 붙인다.<sup>37)</sup> 지리산의 사찰 간행본에 연관자로 참여한 사람은 총 52명이다. 이 중에서 여러 사찰 간에 중복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 인물은 수경(修鏡)이 유일하다.

36) 道明은 범집별행록절요병입사기(신흥사, 1579), 信罔은 대혜보각선사서(신흥사, 1537), 性崑은 선원제전집도서(신흥사, 1537), 天云은 대혜보각선사서(능인암, 1604), 德浩는 묘법연화경(능인암, 1604)에서 역할명 없이 이름이 수록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7) 천혜봉, 『한국전적인쇄사』, (범우사, 1990), 114.

<표 10> 寺刹間 重複 參與 鍊板者

鍊板者名	寺刹	書名	開板年代	役割名稱
修鏡	삼장사	佛說高王觀世音經	1710	鍊板
	쌍계사	百愚隨筆	1722	鍊板

연관을 담당한 수경의 이름은 1710년에 산청의 삼장사에서 간행된 『佛說高王觀世音經』과 1722년 쌍계사에서 간행된 『百愚隨筆』에서 중복 확인된다. 수경의 중복 참여를 통해 18세기 초기 하동 지역과 산청 지역 사찰 간에 활발했던 불서 간행에서의 인력 교류의 단면을 확인할 수 있다.

## 5. 결 언

지리산에 소재하였던 26개소의 사찰에서는 조선시대에 총 120종의 불서를 간행하였다. 이들 사찰본을 대상으로 5개 지역별로 나누어 개관 현황을 조사하고, 이에 참여한 기능인들의 활동양상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함양 지역의 사찰에서는 지리산 지역 중 유일하게 14-15세기 간행 현전본이 확인된다. 함양 지역의 사찰은 조선 초기에 지리산 일대 불교계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2. 하동 지역의 사찰에서는 주로 16-17세기 초반에 승려들의 교육과 강학을 위한 불서가 대대적으로 간행되었던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는 벽송지엄, 부휴선수 등의 불교계 고승의 문하에 많은 승려들이 모여 들었기 때문이다.
3. 산청 지역의 사찰에서는 18세기 전반기에 전라도 임자도에 표착한 선박에서 발견된 중국 불서 중 아직 간행되지 않은 서적을 복각하여 간행하는 활동이 활기를 띠었다. 이는 1690년 대원암에서 이루어진 『華嚴經疏鈔』의 경우처럼 여러 지역의 사찰이 분담하여 개관하였던 경험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

된다.

4. 구례 지역의 사찰 간행본은 17-18세기에 화엄사에서 개판된 불서가 주를 이루며, 주제별로는 정토종류, 밀교경류, 영험류, 재의식류 불서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지리산 사찰에서는 유일하게 3종의 국한문혼용 불서를 간행하였는데 이는 당시 일반 민중의 종교적 요구에 부합하는 일면을 보이고 있다.
5. 남원 지역의 사찰 간행본은 모두 18세기 후반에 개판되었던 특징을 보이고 있다. 특히 1770년대에 이루어진 『華嚴經疏鈔』의 재간행 불서가 중심을 이룬다. 설파 상언의 발원으로 시작된 이 불사는 대암정사가 주도하고 인근의 황령암, 내원정사가 협력했으며, 널리는 경상남·북도의 주요 사찰들이 함께 참여하여 시주한 비용으로 충당하였다.
6. 그리고 칠불사-화엄사, 쌍계사-화엄사, 쌍계사-지곡사, 칠불사-왕산사, 신흥사-연관사, 화엄사-왕산사, 삼장사-쌍계사의 간행본에 중복 참여한 각수와 연관자의 활동상을 통해, 사찰의 경계를 뛰어넘는 지리산 사찰 내에서의 전문 인적자원의 교류를 확인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1. 單行本

權相老. 『韓國寺刹全書』. 서울: 동국대학교출판부, 1979.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佛敎史의 이해』. 서울: 조계종출판사, 2008.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소. 『韓國佛敎撰述文獻總錄』. 서울: 동국대학교출판부, 1976.

민족문화추진회. 『新編國譯新增東國輿地勝覽』. 서울: 한국학술정보, 2007.

朴相國. 『全國寺刹所藏木板集』. 서울: 문화재관리국, 1987.

- 宋日基. 『靈光佛甲寺의 佛教文獻』. 파주: 태학사, 2004.
- 尹炳泰. 『韓國書誌年表』. 서울: 사단법인한국도서관협회, 1972.
- 智冠. 『韓國佛教所衣經典研究』. 서울: 가산불교문화연구원, 1969.
- 千惠鳳. 『韓國書誌學』. 서울: 민음사, 1997.
- 최석기. 『선인들의 지리산 유람록』. 서울: 돌베개, 2000.
- 최석기 외. 『용이 머리를 숙인 듯 꼬리를 치켜든 듯 ; 지리산 유람록』. 서울: 보고서, 2008.
- 최화수. 『지리산365』. 서울: 다나, 1990.
- 한국문화유산답사회 엮음. 『지리산자락』. 서울: 돌베개, 1996.
- 韓國佛教全書編纂委員會 編著. 『韓國佛教全書』. 서울: 東國大學校出版部, 1975.
- 韓國學文獻研究所 編. 『全國地理志』. 서울: 아세아문화사, 1983.

## 2. 論文

- 金相溟. “朝鮮朝 寺刹板 刻手에 관한 研究.”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1990.
- \_\_\_\_\_. “朝鮮朝 寺刹板 刻手 研究.” 『도서관학』 제20집(1991). 331-403.
- \_\_\_\_\_. “寺刹板의 鍊板과 諸 役員에 관한 考察.” 『사회문화연구』 제11집(1992). 69-81.
- 金聖洙. “四集과 四敎의 集成에 관한 書誌的 研究.” 『항심 윤병태박사 정년 기념 논문집 한국서지학논집』. 대전: 민창문화사, 1999. 271-349.
- 金順玉. “朝鮮後期 華嚴學僧에 대한 研究: 華嚴宗匠 蓮潭有一을 中心으로.” 석사학위논문 중앙승가대학교 대학원. 2007.
- 金容祚. “朝鮮後期 佛教思想의 一傾向.” 『慶尙大學校論文集(人文系篇)』 22(1983. 7). 131-140.
- 김용태. “‘浮休系’의 계파인식과 普照遺風.” 『보조사상』 제25집(2006. 2). 315-359.
- 南權熙. “慶尙道 地域에서 刊行된 佛教 書籍에 관한 研究.” 『항심 윤병태박사

- 정년 기념논문집 한국서지학논집』. 대전: 민창문화사, 1999. 351-456.
- 盧基春. “順天 松廣寺 開板佛事に 관한 연구: 壬亂以後 有刊記 佛書を 中心으로.” 『서지학연구』 제26집(2003). 303-346.
- 柳基石. “湖南地域 典籍 文化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청주대학교 대학원. 1990.
- 白惠景. “楊州地域 佛書 刊行에 관한 研究.”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2005.
- 宋日基. “順天 松廣寺 刊行 佛書考.” 『서지학연구』 제10집(1994). 523-552.
- . “長興 寶林寺 四天王像의 腹藏佛書考.” 『伽山學報』 제6호(1997. 7). 87-125.
- 李玉金. “朝鮮朝 湖南 寺刹版에 關한 書誌的 研究.” 석사학위논문. 상명여자대학교 대학원. 1988.
- 이종수. “숙종 7년 중국선박의 표착과 백암성총의 불서간행.” 『불교학연구』 21호 (2008. 12). 259-295.
- 이희재. “17세기 징광사의 불서출판.” 『불교학보』 제49집(2008). 93-109.
- 정병삼. “진경시대 불교의 진흥과 불교문화의 발전.” 『우리문화의 황금기 진경시대』 1. 서울: 돌베개, 1999.
- 崔東元. “朝鮮時代に 刊行된 禪源諸詮集都序의 書誌的 研究.”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2008.

